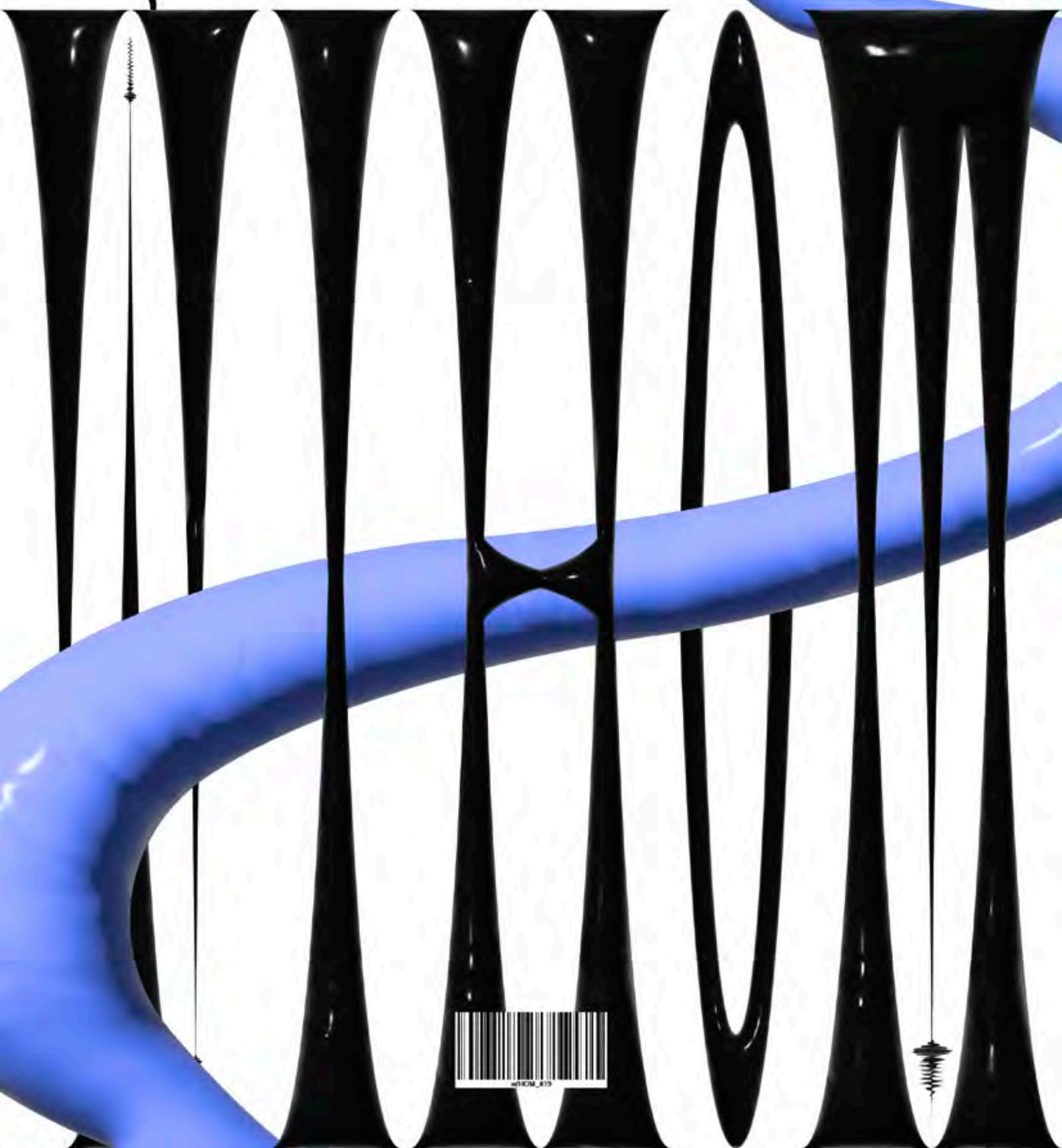




#19





1_NEW_slide_park.jpg



WHAM - Lil Baby

2024.12.15 / moogsick

디스전 혹은 비프는 결국 음악을 더 잘하는 쪽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 때문에 Young Thug의 수감 아래 산발적으로 이어진 릴 베이비(Lil Baby)와 Gunna 간의 대립은 후자의 판정승에 더 가까웠다. 스니치 딱지라는 악조건에서 내놓은 앨범 및 "fuckumeant"이 지대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듯 Gunna와 완전히 선을 그은 후 한 차례의 유출 사고를 거쳐 발매한 <WHAM>은 과거와 현재를 겸돈다. 자신을 포함하여 이제는 트랩 씬의 전설이라고 칭해도 될 듯한 셋이 모인 "Dum, Dumb, and Dumber"와 "F U 2x"가 작품 초반 확실한 뱅어로서의 위치를 점하지만 이어지는 트랙들은 <It's Only Me>의 맹승맹승한 중후반부처럼 Travis Scott과 21 Savage의 피처링을 통해 약간의 변주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다만 본작의 가장 큰 차별점은 최근 자신의 입지를 반영한 듯 이전의 자유분방한 탑 라인 대신 어두운 비트 위에서 다양한 플로우를 펼쳐내는데 더 치중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a Gift & a Curse>가 겹쳐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꽤나 흥미롭다. 어찌 되었든 뉴 트랩 클래식인 <My Turn>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 <WHAM>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에, 또 높은 판매량으로 건재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수준임은 틀림없다.



Muddy Waters Too - Redman

2024.12.24 / 자카

9년 만의 새로운 정규 앨범, 명실상부 그의 대표작이자 최고작 중 하나인 <Muddy Waters>의 후속작이라는 명목 아래 발표된 레드맨(Redman)의 새로운 스튜디오 앨범 <Muddy Waters Too>는 그래도 최소한의 구실은 해낸 작품이다. "Aye"를 비롯한 트랙들은 과거에 보여주었던 동부 힙합 사운드를 충실히 담아내며 굉장히 유쾌한 경험을 선사해 주며, 레드맨 본인 역시 유려한 플로우와 타격감이 몸소 느껴지는 딜리버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Muddy Waters Too>는 과연 <Muddy Waters>의 후속작에 걸맞은 훌륭한 작품인가? 대답은 '아니오'다. 32개라는 과도하게 긴 트랙 수와 러닝타임에 비해 앨범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기 짝이 없으며, 동시에 비트와 혹 역시 단조롭고 평범하게 흘러가는 순간들이 많다. 동시에 앨범 중간중간에 위치해있는 여러 스킷 트랙들 역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밖에 작용하지 못한다. 또한 "Goofy", "Wudeytauknbout"를 비롯한 트랙들은 완성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뻔하고 산만하기만 한 트랙들이다. 레드맨이 본작에 나름의 노력과 긴 시간을 투자했음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의 과도한 욕심이 앨범의 완성도를 저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Muddy Waters Too>는 <Muddy Waters>와 비견될만한 트랙이 단 한 곡도 존재하지 않는 비운의 음반이다.



INTERFERENCE PATTERN - E L U C I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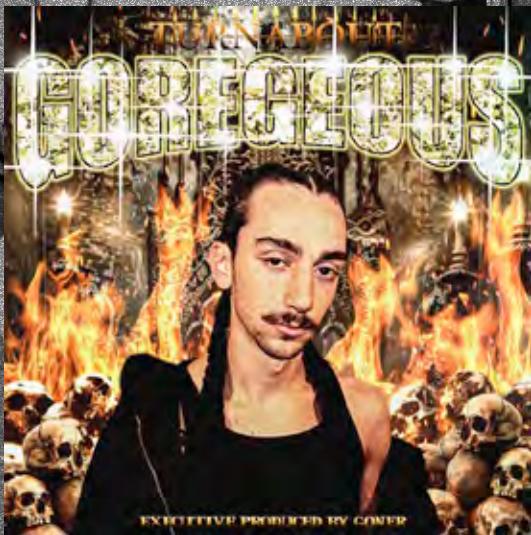
2024.12.29 / 자카

2024년 <REVELATOR>와 “Doves”를 비롯한 훌륭한 음악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한 엘루시드(E L U C I D).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가해졌던 과소평가를 정면돌파하며, 그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자신의 재능을 눈부시게 빛냈는데 — 그런 그가 2025년을 단 이틀 남겨두고 41분의 한 트랙으로 구성된 새로운 앨범 <INTERFERENCE PATTERN>을 발표하며 또 한 번 제대로 실력행사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엘루시드는 본작에서 항상 자신과 함께해온 동료들 — billy woods, Kenny Segal, JPEGMAFIA, Benjamin Booker — 과 함께 사운드 콜라주 기법을 중심으로 뉴에이지부터 아방가르드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무시무시한 음악을 선보인다.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선명한 보컬, 짧고 복잡다단하게 파편화된 비트가 소음과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한다. 앨범이 다소 즉흥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 그의 커리어 하이라는 극찬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작품이지만 — 본작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감정들과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한다. 그렇기에 <INTERFERENCE PATTERN>은 충분히 가치있으며, 더 많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농담 반 섞어 말하자면, 포스트 힙합이라는 장르와 가장 가까운 음악은 엘루시드의 것이다.

Empty Stomach, Wilting Faith - bappy

2025.01.01 / 자카

배피(bappy)는 17분의 단일곡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EP <Empty Stomach, Wilting Faith>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를 하나의 음악에 녹여내며 풍성하고 꽂나 독창적인 사운드스케이프를 형성한다. 힙합을 필두로 인디트로니카, 인디 록, 포크, 일렉트로닉 등등의 장르들에 영향을 받은 본작은 특별히 정체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끊임없이 스타일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빠르고 날서있는 배피의 플로우와 후킹한 멜로디는 앨범의 전개를 역동적으로 꾸며주며, 중반부에 등장하는 저지 클럽 스타일의 드럼 비트를 비롯한 여러 다채로운 순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즐거운 청취 경험을 제공한다. 신시사이저를 활용한 몽환적이고 정교한 프로덕션과 배피의 감정적인 보컬의 조화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배피의 보컬은 때로는 전체적인 사운드스케이프에 융화되기도, 때로는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있는 힘껏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그의 전작들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Empty Stomach, Wilting Faith>는 배피의 노련함과 창의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탄탄한 작품이다.



GOREGEOUS - Turnabout

2025.01.03 / 감상주의

<GOREGEOUS>는 Haunted Mound의 막내였던 턴어바웃(Turnabout)이 독립 후 발표한 첫 작품이다(전작 EP <mortem Solis>은 소속 당시의 앨범으로 봐야 할 것). 그럼에도 그는 그들과 공유했던 미학까지 버리진 않았다. 함께 탈퇴한 동료이자 본작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GONERVILLE 역시 마찬가지다. 해골 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는 익스트림 메탈 풍의 앨범 커버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둡고 거친 스타일, 이를테면 <Cutter Lane>의 그가 맞음을 상기시켜준다. 다만 그는 어리지 않으며, 주변 환경마저 진정 홀로 설 줄 아는 어른이 돼야할 때임을 알리고 있음을 작년부터 부쩍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프로덕션에서의 샘플 초이스나 간결한 재치가 더욱 맛있어진 랩 메이킹으로 보아, <LORD OF EPHRAIM>에 비하면 둘 다 나름 노련해진 티가 난다. 앞으로의 관건은 레퍼런스가 분명한 기존의 스타일로부터 자기만의 것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일 것이다. 당연히 자연스럽고 팬들도 지금이 더 친숙하겠지만, 아직 떠난 둑지의 때가 거의 그대로 질게 남아 있다. 본작은 이후 분투에 앞선 일종의 전초전이라 봐야 할 것이다. 예고된 과정 자체로 그의 모습은 더욱 찬란하구나. 물론 우직한 그의 정체성("GORE")을 접두사로 각인시킨 찬란함이다.



Cupid - Wolffacejoeyy

2025.01.08 / SONGCHICO

특정 세부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은 '그 장르의 매력을 얼마나 잘 살렸는가?'와 동시에 '그 사운드의 선구자로부터 얼마나 잘 벗어났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되곤 한다. 레이지 앨범은 반드시 Playboi Carti의 작품과 비교되며, UK 드릴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Pop Smoke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2024년에 들어서야 이름이 붙여진 섹시드릴(Sexy Drill)에서도 다르지 않다. 장르의 창시자인 캐시 코베인(Cash Cobain)의 드릴 사운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며, 섹시드릴은 '캐시 코베인을 얼마나 잘 모사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벗어났는가'라는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2025년에도 섹시드릴 씬에 머물고 있는 울페이스조이(wolffacejoeyy)는 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작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랩스타 생활을 시작한 그가 발매한 이번 작품은 얼터너티브 알앤비와 트랩 소울의 방식을 따르며, '섹시드릴'의 섹시함에 더욱 집중했다. 섹시드릴 사운드의 트랙과 그렇지 않은 트랙을 번갈아 배치해 청자의 피로감을 덜어주려는 전략을 내세웠으나, 정작 섹시드릴에 해당하는 트랙들은 서로 지나치게 비슷한 사운드를 보이며 진행될수록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본작의 가장 확실한 흥미 요소는 울페이스조이의 음색과 멜로디 라인이다. 그는 단순한 섹시드릴 래퍼로 남기엔 아쉬운 재능을 마음껏 과시하며, 장르적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본작은 섹시드릴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지만, 동시에 울페이스조이의 장기가 십분 발휘된 작품이기도 하다. 한계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그가 뉴욕의 밤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볼 만하다.



Aquarius III - Logic

2025.01.17 / moogsick

작년 <Ultra 85>를 통해 커리어 하이에 가깝게 다가서며 건재함을 알렸던 로직(Logic)이지만 안타깝게도 씬 내의 반응은 그 완성도에 비례하지 못했다. 하여 발매 이후 TMZ 인터뷰에서 이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음악은 다 했다며, 이제는 Playboi Carti 스타일 트랩에 도전해 돈을 벌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오랜 팬들의 탄식을 불러일으켰던 발언이지만 다행히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될 것 같다. <Aquarius III>는 그간 로직이 펼쳤던 우주 세계관을 다시 연결하고 추후 활동에 대한 결심을 전하는 후속작이다. 오프닝 "This Is The Way"부터 페르 소나 Quentin Thomas를 다시금 등장시키며 '성취 후 공허감을 느꼈던 이유는 내 자신의 가치와 결과물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최근 불안정했던 심리 상태를 인정한다. 이어 2020년대 다른 작업과 같은 선상에 있는 타이트한 동시에 유연한 래핑, 자연스러운 멜로딕 랩을 선보이던 중 마지막 트랙에서 들려오는 어린 시절의 녹취는 단연 감동적이다. 과거 디스코드에서 발표했던 <Inglorious Bastard> 믹스테잎에도 수록됐던 해당 클립은 아직 성공하기 전인 2011년 6월 16일의 젊은 로직이 힙합과 음악을 향한 끝없는 열의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는다.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굳은 의지, 우리는 이 래퍼의 진심에 속수무책으로 감동한다.



THE PEAK - smokedope2016

2025.01.17 / SRUKSAN

언제나 블러 처리된 마스크, 약에 취해 헤롱거리는 걸음걸이. smokedope2016(스모크도프2016)가 올해의 포문을 여는 <THE PEAK>에서 타이틀 명처럼 그의 고점을 선보인다. 리버브의 극대화, 때려 박아낸 서브베이스로 치장된 웨이브(Wave)로 <The Comeup>에서 다소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일관성을 탁월하게 잡아낸다. 느닷없이 등장하는 존야의 모래시계 효과음이라던지, 지나치게 리버브를 입힌 나머지 태평소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 법한 우스꽝스러운 사운드라던지. 여느 클라우드 랩(Cloud Rap)처럼 정신착란적이지만 차별화된 뱅어들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추진시킨다. 동이 틀 때까지 행하는 파티에서 주사기를 꼽는다기보다, 핫식스 20캔을 주유하고 허공에 비벼대는 기분이랄까. 지금까지의 해당 장르가 옛은 안개 속을 방황하며 피폐해지는 이들을 묘사한 반면, <THE PEAK>는 그 안개를 걷어내지 않고 사이를 내달릴 뿐이다. 동어반복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장르에도 신선한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THE PEAK>, 나아가 웨이브라는 장르가 2025년의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트렌드세터가 될 것인지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



2_watching_FULL_with_the_sounds_off.jpg



LANA - SZA

2024.12.20 / Indie Aisle

1. No More Hiding / 2.What Do I Do / 3. 30 for 30 (with Kendrick Lamar) / 4. Diamond Boy (DTM) / 5. BMF / 6. Scorsese Baby Daddy / 7. Love Me 4 Me / 8. Chill Baby / 9. My Turn / 10. Crybaby / 11. Kitchen / 12. Get Behind Me (Interlude) / 13. Drive / 14. Another Life / 15. Saturn

솔직히 <SOS>를 듣고 필자는 불안했다. 이 앨범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미국이라는 대지와 음반 산업 위에서 괴로워하고, 이별하고, 비루한 돈 후안적 복수를 자행하는 시자(SZA)의 이야기는 Aire Atlantica와 Babyface의 공간감 가득한 프로덕션 아래 말그대로 파괴적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그 안에 <Ctrl>의 다채로움이 없다. 시중일관 질척이는 오토툤, 변화가 잘 감지되지 않는 드럼라인과 멜로디메이킹, 스스로를 전형성으로 몰고가는 섹스에 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너무 지겨워져서 필자는 시자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들이고 말았다. 물론 Avril Lavigne풍 하이틴 록을 융합한 "F2F"나 Ol' Dirty Bastard를 샘플한 "Forgiveless"는 독특했다. 혹은 "Kill Bill"과 "Shirt", "Good Days"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곡이다. 문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곡들의 유사성이 좋은 순간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긴 러닝타임 동안 동어반복의 향연이 일고, 양적으로 풍요로운 곡들이 독창성을 하나의 전형성으로 내던진다. 시자는 송메이킹의 문제보단 고착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시자에 관한 불안은 대개 이 아름답고도 지겨운 스타일이 지속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착상되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정확히 이 부분에서 2년간 끊겨있었다. 그 동안, 시자가 다시 유의미한 작업물들을 이끌고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녀는 이렇다 할 스타일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단 TDE에서 열심히 Kendrick의 앨범에 크레딧을 올리기 시작했고, 새 앨범에 매진하기보단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매달렸다. 그 뒤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GNX>는 "Luther"를 낳았고 <Balloonerism>엔 시자의 명상적인 보컬이 적절히 배합되었다. 그러나 <SOS>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정확히는, 시자 스타일이 <SOS>의 영향권 안에 스스로를 잠식시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SOS Deluxe: LANA'라는 <LANA>의 풀네임은 조금 아리송하게 다가온다. 이 앨범이 <SOS>의 인력권 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짙은 오토투과 시종일관 몽롱한 분위기는 그대로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이색적이며, 대부분 새콤한 풍취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어떤 곡들은 <SOS>를 위해 쓰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질적인 사운드를 지니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앨범에선 시자 본인부터 '딜럭스'라는 형식을 조금 이상하게 사용했다. 낯선 앨범 커버와 <SOS>의 영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 본격적으로 야생적인 일렉트로니카 음향에서 공허한 바닷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자는 갑자기 본판과는 전혀 상관 없는 '딜럭스 앨범'을 만들어버렸다. 정확히는 딜럭스를 위시했지만 컨셉이 다르고, 유기적으로 배치해 놓았지만 사운드가 이질적인 앨범을 창조했다. 필자는 이 앨범을 차마 <SOS>의 연장선에 놓여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LANA>는 어쩌면 시자의 최고 앨범이자 세계에서 가장 괴상한 딜럭스 앨범이다. 그러나 그것이 '<SOS> 에라' 시자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부터 이 앨범에 관한 사유는 그 간극에 관한 이유를 갈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사실 시자의 음악세계를 탐구하면서, 필자는 계속 '수록'이라는 부분에 관해 눈여겨보고 있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자가 앨범을 제작하는 방식은 밀레니엄의 그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녀는 곡을 만들고 또 만든다. 그러나 그 곡들은 앨범에 수록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축조되지 않으며, 테마의 상관관계는 미약하다. 그녀는 앨범의 구조나 전개에 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200곡 분량의 곡들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곡들의 취사선택과 순열을 통해 앨범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시자의 앨범에선 곡들이 컨셉보다 선행한다. 유명한 인터뷰가 있다. "<Ctrl>에 수록될 곡들을 고르던 도중, 앨범 발매가 늦어지자 소속사가 멋대로 발매해버렸어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Ctrl>은 완전 다른 앨범이 됐을 걸요." 이 말 속엔 약간의 함의가 숨겨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자는 하나의 컨셉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앨범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곡들을 놓고 거기에서 앨범을 재배치한다. 아마 Frank Ocean이나 2010년대 Kanye West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소속사와 맹렬히 격돌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자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 바꿔말하면 그녀 본인이 앨범에 '수록되어야만 하는' 곡들과 '없어서는 안 될' 어떠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자 앨범 속 곡들에서 '언제 작업되었는가'가 아닌 '언제 배치되었는가'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LANA>는 그런 작업방식을 대변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SOS>를 위해 작업되었던 곡들이 <SOS>와는 상관없는 세계를 구성한다. <LANA>는 <SOS>에 관한 2025년식 재해석에 다름 아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작곡자가 아닌 수록자로부터 비롯되게 된다.

인트로덕션 “No More Hiding”부터 “Diamond Boy(DMT)” 까지 이어지는 전반부는 거의 최면적이며, 2020년대 팝의 해설과도 같은 “30 For 30”의 존재감은 전작 속 “Kill Bill”에도 비견될 듯하다. 전반부의 곡들은 하나같이 <SOS>의 몽롱한 분위기와는 거리를 둔 곡들로 수록되었다. Kendrick Lamar의 나른한 저음 음성은 <SOS>가 아니라 <LANA>에 더욱 걸맞고, “No More Hiding”의 야생적인 신스 릭은 오롯이 <LANA>의 컨셉을 위해 온존되었다. 그나마 “What Do I Do”的 멜로디메이킹이 <SOS>의 방식에 맞닿아있지만, 저 명료하고 쾌활한 키보드 보이싱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시자는 이 요사스럽게 친환경적이며 간결한 사운드들을 고기스런 풀벌레 컨셉에 꺽 잘 어울리게 배치한 것 같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BMF”가 평범한 알앤비 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인데, 유기성을 위시한 것인지 컨셉을 보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2020년대의 정형화된 곡 패턴이 이 휘황찬란한 앨범에서 굳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그려진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중반부로부터 후반으로 이어지는 구간엔 다소 핵심적인 싱글들이 산재해 있는데, 좋은 예시를 들자면 “My Turn”이나 “Crybaby”의 조밀한 프로덕션을 찬동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쁜 예시를 들자면 “Chill Baby”의 다소 지루하고 공허한 곡 전개를 깎아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Scorsese Baby Daddy”부터 “Get Behind Me(Interlude)”까지 이어지는 그 우아한 완급조절 앞에선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 이 앨범은 유기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는데도 흐름이 깔끔하고, 유사한 감도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동어반복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결국엔 배치와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재지한 릭이 휘몰아치는 “Crybaby” 뒤에 내향적으로 화창한 “Kitchen”을 수록한 것은 센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고, 폭발적인 “My Turn”을 앨범의 허에 자리시킨 것은 재능의 영역이다. 이 흐름에는 개별 곡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의도되지 않았던 기이한 카타르시스들이 있다. 거기에서 시자의 음악가적 광휘, 보다 정확히는 앨범 제작자적 광휘가 물어나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결국 <LANA>는 (시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곡을 만든다는 것과 앨범을 만든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사유시킨다. 이를테면 Diplo와 Rick Rubin의 차이. 좋은 곡들을 수록했다고 해서 좋은 앨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곡이 부실하게 만든다고 해서 나쁜 앨범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 이 말들은 <LANA>의 방법론이 후자에 위치해있다고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장광설에 불과하다. “Love Me 4 Me”는 솔직히 잘 쳐줘도 무난한 곡이고, “Another Life”는 개별 곡으로서는 진부하다. “Saturn”는 먹먹한 키보드 아르페지오가 인상적이지만 숨막하게 뻔한 전개를 지녔다. 그럼에도 이 곡들이 감상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은 이 곡들이 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리드 싱글이라며 무척이나 홍보했던 그 곡이 정작 앨범 아웃트로에 배치되어 있는 그 괴상한 풍경을 보면서, 필자는 시자의 보석이 앨범 제작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SOS>를 듣자 그 전형성의 순열이 비로소 하나의 테마로 받아들여졌다. 시자의 능력은 단순한 멜로디 메이킹이 아니라 곡들 속에서의 연관성을 사유하고, 그 연관성을 음악적 흐름으로 바꾸어놓는 그 앨범 제작자적 아이디어에 있다. 어떤 작품은 그 존재만으로 창작자에 관한 완전히 다른 사유를 촉구한다. 지금 <LANA>가 그렇다. 시자가 언제 다음 작품을 들고 돌아올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그녀에 관한 사유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DeBí TiRAR Más FOTOS- Bad Bunny

2025.01.05 / 감상주의

1. NUEVAYoL / 2. VOY A LLeVARTE PA PR / 3. BAILE INoLVIDABLE / 4. PERFuMITO NUEVO / 5. WELTiTA / 6. VeLDÁ / 7. EL CLÚB / 8. KETU TeCRÉ / 9. BOKeTE / 10. KLOuFRENS / 11. TURiSTA / 12. CAFé CON RON / 13. PIToRRO DE COCO / 14. LO QUE LE PASÓ A HAWAii / 15. EoO / 16. DtMF / 17. LA MuDANZA

어느 밭에 꽂혀있던 깃발을 뽑는 노인. 그 깃발은 독립을 상징하는 하늘색의 푸에르토리코(이하 PR로 통칭) 국기다. “세상의 거의 모든 곳을 경험해 봤지만 푸에르토리코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는 독백에서 긍지를 느낀다. 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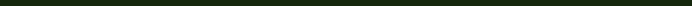
“그것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서문은 배드 버니(Bad Bunny; 이하 베니토로 통칭)의 6집 <DeBi TiRAR Mas FOTOS>를 프리뷰하기 위한 단편 영화의 발단이다. 영화계의 국제적 거장 자코보 모랄레스가 분한 주인공은 제목대로 소중한 일상들을 더 많이 현상해 남기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친구는 멸종위기의 푸에르토리코(이하 PR) 고유종이자 본작의 마스코트 ‘콘초’다. 모랄레스 음식을 사러 홀로 거리를 나선다. 거리에는 대부분 미국 이주민들과 그들의 음악으로 채워져 있다. 스페인어로 된 음악은 어째 들리지 않는다.

매점도 마찬가지다. PR의 음식을 판매하지만 대부분 미국 입맛에 로컬라이징 된 메뉴들이다. 아메리칸 치즈를 먼저 묻는 카운터 점원은 전통 파파 치즈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통 퀘시토를 주문하면 '레귤러'로 대강 받아들이는 점원의 말에 사뭇 당황스럽다. 결제 시스템도 모랄레스가 알던 방식이 아니다.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지역 주민은 소수다. 그가 고향을 증거로 남기지 못해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외지화(Gringo-ification) 정책에 의해 지역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며,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조국이 점차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타지의 것으로 대체되어가는 오늘날 자국의 현실에 대해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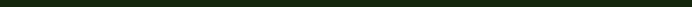
현재 그를 포함한 보리쿠아들은 안에서도 시름을 앓고 있다. 언제 부터였을까. 작년 9월에 공개된 싱글 "Una Velita"에선 2017년 섬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들이닥친 이후 자국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는 대규모 정전 등, 국민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겼다. 특히, 정부를 향한 불신 및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 사태는 전 기의 민영화와 기업의 방치라는 실상에 의해 오히려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랄레스나 베니토처럼 민족을 향한 자부심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보린웬의 낭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마음이 절실히다. 무엇보다 독립된 터전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이 말소되는 것은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 고로 이듬해 앨범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은 궁극적으로 '수호'를 위한 것이다. 매 작품마다 라틴계 문화를 향한 사랑과 이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일 순위였던 베니토지만, 이번에 결이 다른 진중함으로, 파수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작정했다.



우선 취해야 할 행동은 어쨌든 전작들과 같다. 진심을 다해 사랑을 보이며 문화의 매력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세대에 의한 트렌드를 위주로 활용해 문화의 글로벌함과 젊음을 부각시키던 전작들의 방법보다 훨씬 넓고 통합적인 전략을 취했다. 요컨대 옛 세대들의 취향과 전통의 멋도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가령 올드 스쿨 장르의 재해석과 민속 음악의 퓨전이 먼저 눈에 띈다. 첫 단추 "NUEBAYoL"에서는 El Gran Combo의 70년대 정통적인 살사 "Un verano en Nueva York"을 샘플로 인트로에 제시한 뒤, 이를 90년대 덴보우 비트에 혼합했다. 어버이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음악을 아울러 세계에 내보이겠다는 의지가 극명하다.

전파에 있어서 최우선은 그것이 '온전히' 내 공동체의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미니카, 쿠바, 카리브해 등 이웃들의 것까지 포함하여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의 것이라면 다른 얘기가 된다. 그들을 적대하는 태도는 아니다만, 그럼에도 '순수하게 우리의 피가 담겨 있는 것'으로 무브먼트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리듬이나 멜로디, 악기, 언어 등에서만큼은 국산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썼음을 그들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트랩 리듬과 영어를 배제한 것은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VOY A LLeVARTE PA PR", "PERFuMITO NUEVO" 등 절반이 넘는 곡들은 동일한 트레실로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팝적인 감성 돌보이는 'WELTiTA'에서는 시퀀스의 드럼킷보다 구이로나 콩가 등의 전통 퍼커션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다.



살사나 플레나 등 앞선 세대부터 이어져 온 음악은 더욱 본연의 작법에 충실하게 따랐다. "BAILE INoLVIDABLE"의 뮤직비디오처럼 우리 문화일지라도 누구든 처음 접할 때는 어색하고 서투르기 마련이다. 첫 살사 댄스 수업에서 어떻게든 옆 수강생들을 따라 잡기 위해 애쓰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다 보니 어느새 능숙한 재주꾼이 됐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CAFé CON RON"의 플레나도, "BOKeTE"의 바차타도, "TURiSTA"의 볼레로도 일말의 훼손이나 오류 없이 원래부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처럼 다를 줄 아는 경지에 달했다.

음악을 포함해 베니토는 어느덧 민속 및 환경, 역사 전반을 꿰뚫고 있으며, 이를 상세히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트랙의 비주얼 라이저 영상에는 1508년 스페인에 의한 타아니족이 생활하던 PR의 첫 식민지화부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1868년 '그리토라 레스', 1952년 자유연합국 지정 등 식민지 및 독립 관련 역사 정보들이 기재돼있다. 한편, PR의 고유종, 플레나와 봄바부터 레게 톤으로 이어지는 음악사도 함께 기재돼있다. 계승돼오고 있는 것과 잃어가고 있는 것들의 열거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독립과 민족 수호를 향한 의지는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향한 침울함은 도저히 감출 수 없다. 마치 전 연인으로 남겨진 누군가를 쓸쓸히 그리워하는 것만 같다. 이를테면 이대로면 영영 'ex-Puerto Rico'가 되어버리고 말 고향에 대한 근심과 추억마저 망각돼가는 세월을 향한 한탄으로 말이다. '자신에게 춤을 가르쳐 줬지만 결국 떠나버린 여자'라는 설정은 주제를 축하는 은유다. 춤은 곧 민족을 향한 자긍심이자 낭만이요, 여자는 이를 깨닫게 해준 아름다운 조국의 문화다. 그러나 "PITORRO DE COCO"의 뮤직비디오처럼, 이제 그는 축제 시즌이 다가와도 즐겁지 않다.



트랙을 거칠수록 은유는 PR의 현 상황과 정부를 향한 더 직설적인 비판이 되기 시작한다. "BOKeTE"에선 국토나 전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임을 지적한다. "TURiSTA"에서는 자신들은 즐겁게 보내지만 정작 자국의 상태를 헤아려주거나, 심지어 존중해 줄 생각도 없는 관광객 및 오버투어리즘의 실태를 조명한다. "LO QUE LE PASO A HAWAII"는 신식민지화를 향한 개인으로서의 가장 노골적인 입장 표명이다. 여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명분으로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현재의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들을 향한 연민도 포함돼 있다.

이렇듯 조국의 현 처지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은 낙천적일 수 없다. "Le MuDANZA"에 의하면 오늘날의 보리쿠아는 '위기의 세대'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EoO" 속 날 것 그대로의 흥겨움처럼, 또는 "DtMF" 속 가족과 일상의 안락함처럼 삶의 의미는 이어져 오고 있다. 언젠가는 잠시 잊었던 그들의 희망도 되찾을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터전은 아직 초록으로 샘솟고 있으며, 모랄레스와 콘초가 떠나간 뒤의 빈자리일지라도, 이곳은 보리쿠아들이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서 남겨둔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Mac Miller:

BALLOONERISM

Balloonerism - Mac Miller

2024.01.17 / 자카

1. Tambourine Dream / 2. DJ's Chord Organ (ft. SZA) / 3. Do You Have A Destination? / 4. 5 Dollar Pony Rides / 5. Friendly Hallucinations / 6. Mrs. Deborah Downer / 7. Stoned / 8. Shangri-La / 9. Funny Papers / 10. Excelsior / 11. Transformations (ft. Delusional Thomas) / 12. Mankins / 13. Rick's Piano / 14. Tomorrow Will Never Know

2024년 11월 16일, Tyler, The Creator의 Camp Flog Gnaw 콘서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 하나가 떠올랐다. 풍선을 띄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맥 밀러(Mac Miller). 2020년 첫 사후 앨범이었던 <Circles> 이후, 약 5년의 공백 끝에 그의 새로운 작품 <Balloonerism>이 예고된 것이다. 약 10년 전인 2013년~2015년에 걸쳐 제작된 본작은 당시 맥 밀러의 커리어를 대표하던 작품들인 <Faces>, <Watching Movies with the Sound Off>, <GO:OD AM>을 비롯한 작품들과 상당히 유사한 색채를 띠고 있으나, 당시 그가 추구하던 음악적 방향성을 더욱 넓게 확장시켜놓은 모습이 관측된다.

<Ballooneris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1년 맥 밀러의 행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해 그는 믹스테입 <K.I.D.S.(Kickin' Incredibly Dope Shit)>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XXL 프레시맨 클래스에 Kendrick Lamar, Meek Mill, YG 등의 래퍼들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그 기세를 이어 데뷔 앨범 <Blue Slide Park>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lue Slide Park>는 그가 <K.I.D.S.>에서 보여주었던 창의력이 사라진 채, 대중성에 지나치게 치중된 음악을 보여주며 맥 밀러의 향후 방향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다.t

그렇게 맥 밀러 본인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못했던 <Blue Slide Park> 이후, 그러한 실패들을 몸소 체감한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연구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작품들이 앞선 문단에서 한 차례 열거했던 <Faces>, <Watching Movies with the Sound Off>, <GO:OD AM>이 되는 것이다. 대중성보다는 실험성과 예술성을 더욱 표방하는 본작들에서 그는 본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쳐놓았고, 본작 <Balloonerism> 역시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맥 밀러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과 고통을 비롯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함께 매혹적으로 앨범을 전개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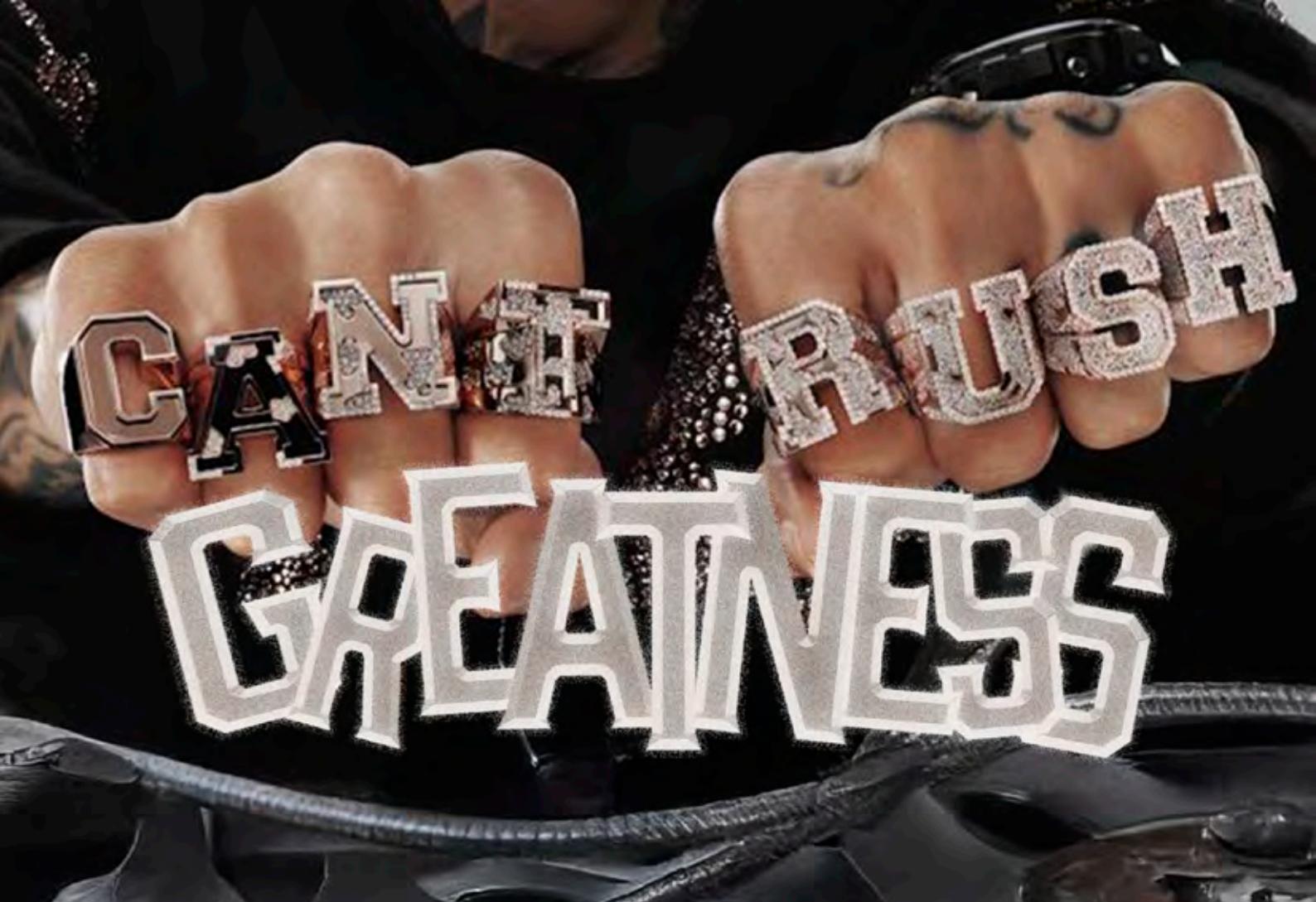
<Balloonerism>이 제작되던 당시 맥 밀러는 정신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방대했던 작업량과 달리, 창작 과정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들었고 — 그가 향후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역설적으로 음악 활동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본인과의 크나큰 갈등을 겪었다. 그렇기에 Rick Rubin의 집에서 회복을 위해 요양하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꾸밈없이 담아낸 트랙 “Rick’s Piano”를 비롯한 <Balloonerism>의 수많은 트랙들에서 당시 맥 밀러가 삶을 바라보던 자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그의 음악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독, 이상, 갈등을 비롯한 주제들이 한층 더 깊게 탐구되어 있다.

초반부의 타악기 리듬 포켓, 중후반부의 약에 취한 듯한 혼란스러운 악기 구성이 눈에 띄는 본작의 프로덕션 역시 무시할 것이 못 된다. “Do You Have a Destination?”의 몽롱한 소울 리듬, 베이스 라인이 유려하게 도약하고 잠수하는 “5 Dollar Pony Rides”, 맥 밀러의 방대한 음악적 스펙트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Stoned”, “Excelsior”, “Tomorrow Will Never Know”를 비롯한 —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품고 있는 트랙들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기에 이른다. <Faces>에서 <Circles>까지 그의 디스코그래피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념적인 분위기 역시 <Balloonerism>에서 관찰되며,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 말로 쉽사리 형용할 수 없는 우울을 선사한다.



또한 앨범의 핵심 트랙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Funny Papers”에서 맥 밀러가 보여주는 냉소적이면서도 무력한 태도 — ‘고요 사이로 음악만이 흘러나와 / 넌 침묵을 좋아해? /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 —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다. 간소한 피아노 비트 위에 담담한 위안을 선사하는 맥 밀러의 래핑, 동시에 그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동시에 돋보이는 본 트랙은 “Good News”, “Self Care”를 비롯한 그의 클래식 넘버들과도 비견될만하다. 맥 밀러의 음악이 주는 특유의 울림이 “Funny Papers”에서도 역시 톡톡히 발현되며, 마치 맥 밀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Balloonerism>은 “Tomorrow Will Never Know”의 뛰노는 아이들의 사운드, 그리고 텅 빈 듯한 드럼 비트와 소음으로 마무리되며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그러한 씁쓸함은 맥 밀러가 우리의 곁을 떠난 지금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일 테지만, <Balloonerism>을 비롯한 그의 예술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Balloonerism>은 — 어쩌면 전작 <Circles>보다도 더욱 — 맥 밀러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며, 동시에 그가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만 같다는 감상까지 들게 하는 생명력을 보유한 — 사후 앨범에 대한 모두의 선입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작품이다.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들을 추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는 바로 이들이 남기고 간 예술과 유산일 것이니, 그렇기에 <Balloonerism>은 존재해야 한다. 맥 밀러의 커리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Balloonerism>은 그 커리어를 마무리 짓는 작품으로서도 아주 제격이다.



Can't Rush Greatness - Central Cee

2024.01.24 / 자카

1. No Introduction / 2. 5 Star / 3. GATA (ft. Young Miko) / 4. St. Patrick's / 5. GBP (ft. 21 Savage) / 6. Top Freestyle / 7. Up North / 8. CRG (ft. Dave) /
9. LimitLess / 10. Now We're Strangers / 11. Truth In The Lies (ft. Lil Durk) / 12. Ten (ft. Skepta) / 13. BAND4BAND (ft. Lil Baby) / 14. Gen Z Luv / 15.
Walk In Wardrobe / 16. Must Be / 17. Don't Know Anymore

현재 영국 힙합의 정체성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UK 드릴 장르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영국 음악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전 세계의 리스너들에게 주목받는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UK 드릴과 영국 힙합 유행이 시작되던 시절부터 꾸준히 하나의 의구심과 의심을 품어오곤 했다. 과연 UK 드릴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장르에서 색다르고 신선하다는 감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지금, 영국 힙합은 이제 그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지점 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Skepta, Stormzy, Headie One을 비롯한 인물들이 이끌던 반향의 기운은 사라지고 있으며, 영국 힙합 특유의 투박함마저 포장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해지는 장르에 대한 피로감과 리스너들의 불만, 희미해져만 가는 정체성, 차트 성적만을 노린 래퍼들의 지나치게 반복적인 무의미한 음악. 이러한 영국 힙합씬의 딜레마와 고질점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인물은 바로 센트럴 씨(Central Cee)였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Doja", "Sprinter"를 비롯한 히트곡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그였고, 이제 그는 Drake를 비롯한 미국 힙합씬에게도 환대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로, 그가 UK 드릴 장르의 부흥과 재기를 이끄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의 첫 정규 앨범은 무슨 일이 있던 필연적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앨범의 성패가 앞으로의 영국 힙합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24일, 전 세계적인 주목 아래 발표된 <CAN'T RUSH GREATNESS>. 과연 본작은 리스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반이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센트럴 씨가 캐치한 트랙을 제작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확실히 다른 영국 힙합 음반들에 비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21 Savage와 함께한 “GBP”, 갱단 시절의 고됐던 기억들과 고향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담은 “Limitless”, 그리고 그놈의 “BAND4BAND”(...) 등. <CAN'T RUSH GREATNESS>의 트랙들은 평범하디 평범 하지만, 여타 영국 래퍼들에 비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과 어느 정도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수준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센트럴 씨가 랩을 못하는 아티스트도 아니기에 타격감 역시 확실하다.

하지만 그게 끝이다. 수많은 이들이 기다린, 이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한 센트럴 씨의 첫 정규 앨범 <CAN'T RUSH GREATNESS>는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이나 신선한 지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운영을 종료한다. 센트럴 씨의 플로우는 50분이라는 앨범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전개되고, “Gen Z Luv”을 비롯한 — 대놓고 상업성만을 노린 유치한 트랙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본작은 영국 힙합의 정체성을 탐구하지도 않고 그저 미국 물을 절실히 원하는 영국인의 속내가 다 보이는 계획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자신이 상업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음을 한치도 숨기지 않고, 앨범의 모든 트랙들을 “Doja”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매너리즘. 그것이 <CAN'T RUSH GREATNESS>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필자 역시 센트럴 씨가 영국 힙합 씬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도 자기 자신이 영국 힙합 씬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래퍼임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터, <CAN'T RUSH GREATNESS>는 분명 이런 모습으로 완성되어서는 안될 작품이었다. 센트럴 씨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안전지대에 머무는 길을 택했고, 그렇게 <CAN'T RUSH GREATNESS>는 단순히 센트럴 씨라는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집중한 작품으로 남고 말았다. 여所所로 영국 힙합 씬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작 이후 센트럴 씨에게 그러한 기대를 거는 행동이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이는 현 상황. 과연 씬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해 줄지도 미지수이다. 슬프고 냉혹한 말이지만, 필자는 더 이상 이 장르에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Goyard Ibn Said - Ghais Guevara

2024.01.24 / 자카

1. Introduction To Act 1 / 2. The Old Guard Is Dead / 3. Leprosy / 4. 3400 / 5. I Gazed Upon The Trap With Ambition / 6. Monta Ellis (feat. Yoko McThuggin) / 7. Yamean (feat. FARO) / 8. Camera Shy / 9. Introduction To Act 2 / 10. Bystander Effect (feat. ELUCID) / 11. 4L / 12. The Apple That Scarcely Fell (feat. McKinley Dixon) / 13. Branded / 14. Critical Acclaim / 15. Shaitan's Spiderweb / 16. You Can Skip This Part

jaja00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가이스 게바라(Ghais Guevar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한 두 믹스테입 <BlachBolshevik>과 <There Will Be No Super-Slave>로 그는 단숨에 수많은 리스너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는 가이스 게바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회 고발적인 혁명적인 스탠스를 침명크 소울을 차용한 음악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전파해 나갔고, 그의 투쟁과 외침은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는데 성공하여 그는 단숨에 동시대 힙합 씬에서 가장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에게는 Fat Possum 레이블과의 계약 체결 이후 더 많은 자본과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첫 정규 앨범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 끝에 발표된 작품 <Goyard Ibn Said>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생각을 보다 다양해진 스펙트럼과 함께 설파해나간다. <Goyard Ibn Said>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단연 가이스 게바라의 발전한 리릭시즘과 래핑이다. 앨범의 핵심 트랙이라 할 수 있는 "The Old Guard Is Dead" 와 "Leprosy"에서 그는 빠른 템포의 비트 위에서 정교하고 타격적인 랩을 내뱉으며, "Introduction to Act II" 이후 앨범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후에는 감정적인 깊이를 더해 본인의 발전된 스토리텔링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McKinley Dixon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The Apple That Scarcely Fell"은 세대 간 전달되는 트라우마와 억압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트랙이다. 그러나 문제는 앨범의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 가이스 게바라가 이전에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은 바로 샘플링 사용이 다소 과도해 귀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점. 이 때문에 <Goyard Ibn Said>는 침멍크 소울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트랩 / 하드코어 힙합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 이 때문에 본작은 가이스 게바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력과 장점들이 대부분 희석되어 무미건조한 음악으로만 들리는 순간들이 가득하다. 동시에 트랙들 사이의 응집력이 굉장히 부족하여 본인의 잠재력과 번뜩이는 순간들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점 역시 <Goyard Ibn Said>의 크나큰 단점이다.



부와 특권의 세계(Goyard)와 억압받고 착취당한 역사들(Ibn Said). 가이스 게바라의 투쟁과 혁명의 목소리는 <Goyard Ibn Said>에서도 계속된다.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는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본연의 색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 흑인 예술가의 고민의 산물, 또 그 투쟁의 일부일 뿐이다. 조금 위축되어 보일지라도, 그의 목소리와 의지는 한치도 약해지지 않았으며 — 그의 투쟁은 앞으로의 작품들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Goyard Ibn Said>는 바로 그 긴장감 속에 존재하는, 가이스 게바라는 아티스트의 역량과 그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모두 담겨 있는 작품이다.



3_go:od_CLASSICS.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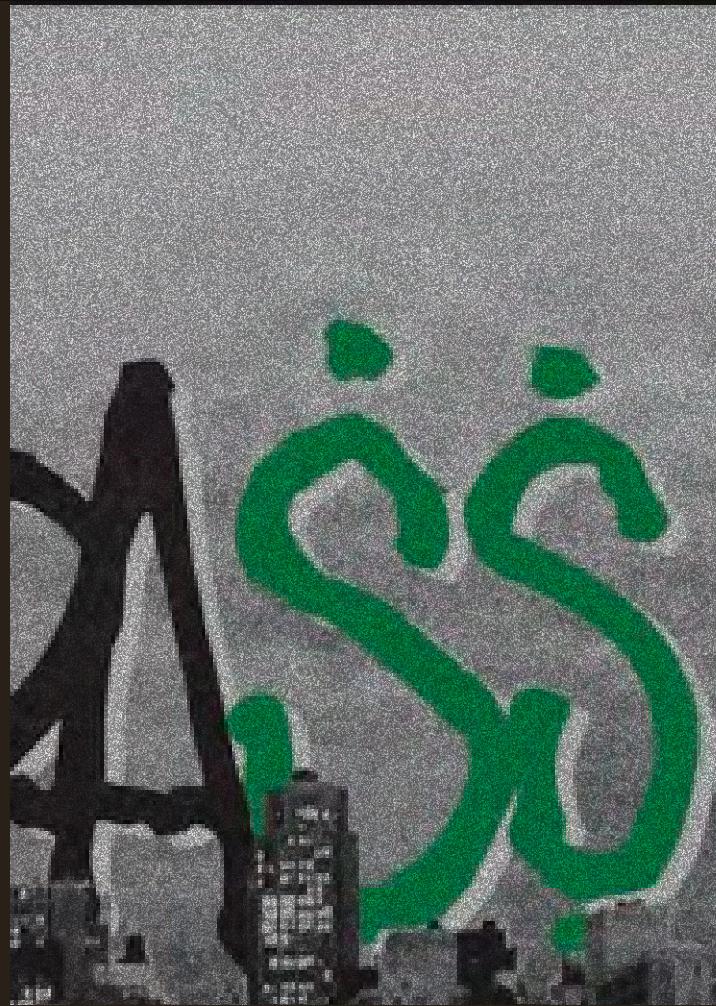
BA.DA.\$\$ - Joey Bada\$\$

2015.01.20 / Indie Aisle

1. Save the Children / 2. Greenbax (Introlude) / 3. Paper Trails / 4. Piece of Mind / 5. Big Dusty / 6. Hazeus View / 7. Like Me (featuring BJ the Chicago Kid) / 8. Belly of the Beast (featuring Chronixx) / 9. No. 99 / 10. Christ Conscious / 11. On & On (featuring Dyemond Lewis and Maverick Sabre) / 12. Escape 120 (featuring Raury) / 13. Black Beetles / 14. O.C.B. / 15. Curry Chicken

시작은 믹스테잎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란 18세 Courtney Dewar Jr는 믹스테잎 제작을 도울 동료를 마련하고 자 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이던 Power Pleasant를 설득해 투자를 받고, 웹사이트를 헤집으며 90년대 블랙 사운드를 향유하는 신예들을 찾아내 예술 서클을 하나 창설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년 여에 걸쳐, 이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던 샘플과, 랩과, 비트와, 사운드를 구현하고 그 작업물들을 'Pro Era'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선 MF DOOM과 Free the Robot, 색소폰 릭 위주의 재즈 샘플들이 일절의 허락 없이 자유로이 사용되었으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비트는 영성한 믹싱과 함께 이들 스타일의 근간이 되었다. 이들은 90년대를 Yeezus의 시대로 데려왔다.

인터넷도 덩달아 이 괴상하고 유치한 집단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즈음 급격한 트래픽을 보이던 신예 래퍼들의 명단엔 이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CJ Fly, Kirk Knight, Chuck Strangers, Bruce Lee Kix, 그리고 조이 배드애스(Joey Bada\$\$). 직접 영입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Courtney는 이들을 각별히 애지중지 여겼다. 특히 막 신예로 떠오르던 17세 조이 배드 애스는 Courtney의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떠안은 희한한 존재였다. Courtney는 이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2012년 4 월엔 Pro Era 전원이 제작에 참여한 Courtney의 <Amerikkkan Korruption>이 공개되었고, 폭발적인 호평에 힘입어 아예 5월엔 컴필 <The Secc\$ Tape>이 발매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그 해 6월에 후발주자로 발매된 조이 배드애스의 <1999>가 공전의 히트를 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다. Pro Era는 브루클린의 골방 한켠에서 68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짧고, 분노로 가득찬 채, 고뇌를 위한 고뇌를 자행하는 아이들. 이들의 재즈 비트와 올드 랩은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다운로드되며, 세상을 그처럼 의식적으로 보고픈 이들에게 인스턴트처럼 팔렸다. 그리고 그 최전선엔 조이와 Courtney, <1999>가 있었다. 그야말로 브루클린발 컨셔스 블랙 리바이벌의 최전성기였다. 그러나 왜인지 그 속에 더 이상 Courtney의 웃음을 없었다.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Courtney는 뉴욕의 한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의 몸을 던졌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다.



Pro Era는 Courtney를 'Capital STEEZ'라고 불렀다. 그리고 Courtney의 빈자리를 채운 채로, 그의 죽음에 가장 비통해 한 것은 물론 조이였다. 조이는 공공연히 Capital STEEZ의 영향을 언급하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해가 넘어가고, 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Pro Era의 열기가 식고, 몇 인원이 크루를 탈퇴하는 일들이 물 흘러가듯 벌어졌다. 성인이 되어 연기 아카데미에 진학해 있던 조이는 Pro Era가 위태로운 듯 보이자 2012년 끝자락부터 제작하던 정규 1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고등학교 시절에 <1999>를 만들던 때와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Pro Era는 대형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몸집이 커져 있었고, 샘플 클리어를 도맡을 스태프들도 충분했다. 다만 조이는 자신이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DOOM이나 J Dilla의 비트를 그대로 가져와 랩을 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접근법을 바꾸었다. Statik Selektah와 Chuck Strangers 등 Pro Era 내외부의 탄탄한 프로듀서진만을 이용해 앨범의 비트를 구성한 것이다. 자본이 투입되면서 즉흥적이고 자유롭던 작업 환경은 효율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특유의 질 낮은 믹싱 상태는 깔끔하고 센슈얼하게 변모했다. 조이도 바뀌어야 했다. 조이의 <B4.DA.\$\$>는 그 '어쩔 수 없는'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있는 앨범이다.

앨범을 여는 “Save The Children”은 그 변화와 정체 욕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안간힘을 쓴 것처럼 들린다. 사실 조이의 크로노로지를 찬찬히 살펴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안에서 유령들을 발견할 것이다. 다른 Pro Era 멤버들이 그들의 작업물에서 STEEZ에 대해 일시적인 추모를 던진 것과 다르게, 조이의 음악에서 Capital STEEZ와 <1999>는 하나의 저주가 되었다. 그 인력이 너무 강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늘 그 곁에 와서 서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너무도 강렬해서 조이가 변화를 꾀할 때마다 그들이 번번히 그 손과 입을 틀어막는다. 조이의 타협은 재즈에 있다. Statik Selektah가 주조한 인트로덕션의 색소폰은 <1999>에서 Chuck Strangers가 빚어낸 내향적 신디사이저를 널뛰기할 만큼 화려하지만, 조이는 거기에서 더 밀고 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다음, 훨씬 더 어둡고 현실적인 부분에 관해 노래하기 시작한다. <B4.DA. \$\$>가 <1999>와 다른 것. 희망과 패기로 가득찬 고등학생이 현실의 성년이 된 것. 자본과 계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속박된 것. STEEZ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현실적인 부분에 귀속된다. 조이는 그 현실을 음악 안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온다. 다소 피상적이고 유치한 결심으로 가득찼던 <1999>가 <B4.DA. \$\$>의 개인적 탄식과 유흥으로 전이된 것은 그 까닭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조이가 간과한 것은 <1999>가 단순히 스스로의 랩 실력이나 개인적 고뇌 때문에 호평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절대적 사실이었다. 조이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청소년의 정신 상태를 지나쳐버렸으며, 전작의 재지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J Dilla, DOOM과 “Righteous Minds”를 프로듀싱했던 Bruce Lee Kix의 비트를 받아낼 수 없었다.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조이는 <1999>의 정신과 현실의 타협점을 완벽하게 찾는 데에 실패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Belly of the Beast”는 이따금씩 지루하게 느껴지고, “Curry Chicken”은 인상적인 아웃트로를 선사하지 못한다. 조이의 가사와 태도는 허세와 진중함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지만, 거기서 정확한 밸런스나 안정적인 하나의 흐름 같은 것들은 잘 감지하기가 힘들다. 물론 풍요로워진 프로듀서진의 견고하고 화려한 프로덕션은 본작의 좋은 양분이었다. 그러나 유기적인 흐름의 결여와 이따금씩 톡톡 끊어지는 완급조절의 실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개별 곡의 짜임이 더 자극적으로 변한만큼 유기적인 진행의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는, 좋은 선례들의 근본적 부르짖음을 조이는 조금 무시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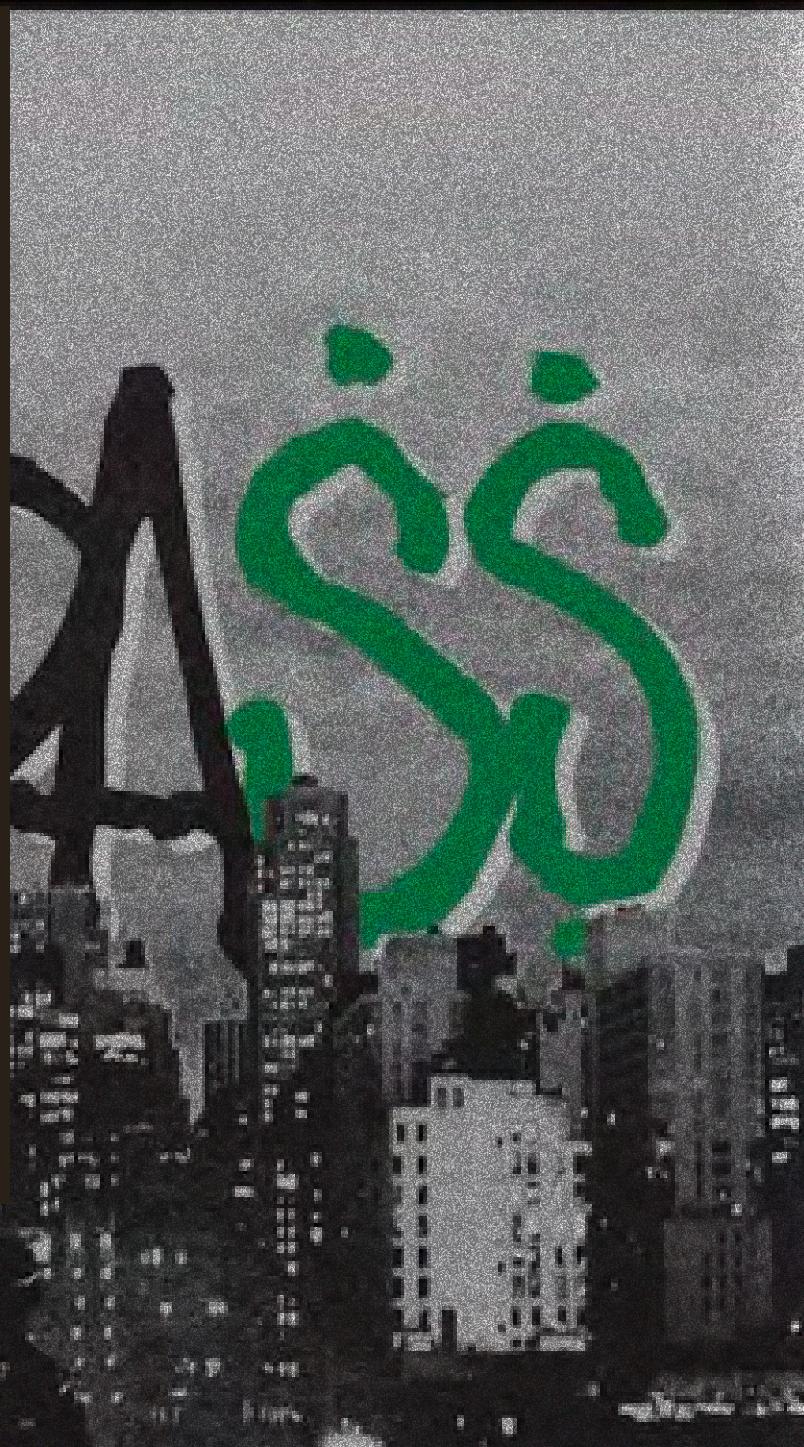
그보다 <B4.DA. \$\$>에서 조이는 랩에만 집중한다. 그 원인이 앨범의 전반적 유기성을 중시했던 Capital STEEZ나 Bruce Lee Kix의 이탈에 있는지, 작업환경의 변화에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이는 갑자기 <1999>식의 유기적 안정성과 완급조절을 경시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경향은 팝과 알앤비를 어지럽게 뒤섞은 소포모어 <ALL-AMERIKKKAN BADA\$\$>에서 급격하게 심화된다. — 랩 테크닉은 더욱 치밀하고 감각적으로 설계되었고, Statik Selektah, Chuck Strangers 등의 프로듀서들은 랩의 쾌감을 증폭시키거나 맥시멀리즘의 공식을 따른 비트메이킹을 시도했지만 그 쾌감은 오로지 일시적인 순간에만 머문다. 이러한 현상은 랩 앨범이 온전히 랩에게만 바쳐졌을 때의 비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좋은 랩과 좋은 비트, 좋은 곡들로 이루어진 이 앨범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한편 <B4.DA. \$\$>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이 앨범이 랩에 집중했다는 것을 떠나, 랩 퍼포먼스가 <1999>에 비해 월등히 성장했다는 하나의 사실에 있다. "Paper Trails"나 "Christ Conscious" 같은 곡들의 랩 디자인은 조이가 가진 MC로서의 재능을 여실히 체감하게 한다. 본능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라임 배치와 파열음을 있는 힘껏 과장한 자메이카 발음을 앨범 내 랩의 쾌감을 증폭시켰고, 드럼 라인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플로우는 한층 기술적으로 변모했다. 비트 이해도는 "Big Dusty" 같은 곡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엉박과 정박을 꼬는 음산한 피아노 라인 속에서 광기 어린 레이 백을 선보이는 조이는 랩 메이킹의 측면에서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 무시무시하고 현란한 플로우를 듣고 있자면 차라리 그것을 '래퍼' 조이 배드애스의 광휘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그런 랩은 <1999>에서 들을 수 없었다. 찢어져라 목을 긁고 총을 쏘듯 입천장을 허로 두드리면서, 그의 랩은 <B4.DA. \$\$>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동부 힙합의 적자. Nas와 Biggie의 장르적 후계. 자메이칸 미국인. STEEZ의 영혼을 짊어진 동료. 조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어쩌면 최고의 래퍼가 되었다. 래퍼라고? 그렇다. 그는 좋은 음악가라기보다는 최고의 래퍼라는 말이 어울리는 몇 없는 21세기 아티스트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어쩌면 조이의 다음 앨범이 계속해서 나와도, 그의 음악은 감탄이 나올만한 랩을 위해 온전히 바쳐질 것이다. 조이의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신념을 들끓게 하는 정열적 랩이지 그 밖의, 이를 테면 유기성이나 앨범 전체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아닌 것이다. 2010년대의 전통적 트랜지션조차 사용되지 않는 그 이상한 풍경을 보면서 필자는 어쩌면 조이의 예술적 목적이 90년대의 — 재현이 아니라 — 영겁회귀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1999>를 듣자, 그 앨범은 완전히 황홀한 앨범이 되었다.



앨범의 비트는 강렬하거나 화려할 때보다는 부드러울 때 훨씬 아름다운 감상을 전해주고, 조이의 자극적인 래핑 또한 훌륭하게 이완된다. "On & On", "Escape 120", "Black Beetles"로 이어지는 최고의 순간은 바로 그 부드러움에 빛지고 있다. 이 앨범에서 Chuck Strangers와 Freddie Joachim의 신디사이저 터치는 적어도 DJ Premier의 "Paper Trails"보다 배로 훌륭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들의 비트는 조이의 래핑만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Christ Conscious"나 "No. 99", "Big Dusty" 같은 곡들의 리듬 위주 프로덕션보다 더욱 아련하고, 정신적이며, 무엇보다도 '컨서스'한 비트들이다. 물론 리듬감과 부드러움의 모범적 중도로 "Hazeus View"를 제시한 Kirk Knight를 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 "Big Dusty"에서 엉박 리듬의 포석을 깔기도 했던 Kirk는 세련되고 서정적인 터치로 <B4.DA. \$\$>에서 가장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Samiyam이 공수해온 "O.C.B"의 피아노 라인과 오케스트라 세션 이야기말로 조이의 커리어에서 전작의 "Righteous Minds"만큼이나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 전개를 뒤틀고 산뜻한 샘플링으로 앨범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이 곡은 아웃트로인 "Curry Chicken"를 차마 이어서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저열한 유기성의 아픔이라고 해야 할까. 어찌되었건 트랙의 흐름이 "O.C.B"를 넘어서 흐르는 것을 내버려두어야 할 때, 필자에겐 조이의 개별 곡들이 이상한 흡인력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눈물이 날 만큼 아주 좋은 음악, 그 장점을 파괴하는 앨범의 구성을 향한 한숨.

.....그리고 Pro Era를 향한 회고. Pro Era의 짧은 전성기를 검색하고, 웹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이름을 찾아대는 것은 약간 눈물겨운 면이 있다. “클래식 명반”이라는 이 란에서 어쩌면 <B4.DA. \$\$>는 그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앨범엔 가라앉기 직전의 그들이 쏟아부은 혈기와 재능이 생생히 담겨있다. 젊고 자유로운 소년들의 애절한 컨셔스. 조이는 아마 <1999>의 “Third Eye Shit”에서 STEEZ가 내뱉었던 가사를 기억했던 것 같다. “별을 바라봐, 너의 제일 먼 열망에 다다를 수 있을지 보라고(Stargazing, See how you can reach your farthest aspirations)”. 가사를 오마주하고 “Survival Tactics” 속 STEEZ의 라인을 변형해 뱉으면서, 청자는 앨범 속에서 조이와 함께 Pro Era와 STEEZ를 회고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Pro Era가 별에 다다르지 못할 것을 안다. 이들은 지구의 중력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B4.DA. \$\$>는 조이 배드애스의 발판이면서, 동시에 Pro Era와의 작별이다. 조이가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이 앨범은 Pro Era의 마지막 순간이자, STEEZ를 향한 맹렬한 추억과 오마주가 되었다. 조이는 <B4.DA. \$\$>를 통해 그들의 끝자락을 2015년에 정지시켜 놓는다. 그러니 이 앨범을 들을 땐 기꺼이 안타까운 유기성에 눈 멀어 주시길. 조이의 휘황찬란한 랩에 리듬을 타며 흥겨워 해주시길. STEEZ와 조이의 라인을 흉내 내자면, 부디 이들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별을 보듯 바라봐 주시길.





Sour Soul - Ghostface Killah & BADBADNOTGOOD

2015.02.17 / 자카

1. Mono / 2. Sour Soul / 3. Six Degrees (feat. Danny Brown) / 4. Gunshowers (feat. Elzhi) / 5. Stark's Reality / 6. Tone's Rap / 7. Mind Playin Tricks / 8. Street Knowledge (feat. Tree) / 9. Ray Gun (feat. MF DOOM) / 10. Nuggets of WisdomF / 11. ood / 12. Experience

태초부터 배드배드낫굿(BADBADNOTGOOD, 이하 BBNG)은 힙합 장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룹이었다. MF DOOM과 Odd Future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던 이들은 이후 Earl Sweatshirt, Danny Brown, Frank Ocean, Tyler, The Creator를 비롯한 자신의 우상들과 공연하며 점차 체급을 키워나갔고, 특별한 샘플링 없이도 래퍼들이 자연스럽게 래핑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나갔다. 그렇게 BBNG는 빠른 속도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얻게 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후 이들은 협업 프로젝트를 원하는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먼저 BBNG와 손을 잡는 데에 성공한 이는 바로 고스트페이스 킬라(Ghostface Killah)였다. 그렇게 힙합씬의 한 축을 꾸준히 담당해오던 베테랑 래퍼와 창의성으로 뚫고 뛰어온 네 젊은이들 — 본작의 발매 당시에는 전 멤버 Matthew Tavares가 탈퇴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 이 힘을 합친 <Sour Soul>은 각자의 색깔을 매끄럽게 녹여낸 빈티지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Sour Soul>에서 눈에 띠는 아티스트는 역시나 고스트페이스 킬라보다는 BBNG일 것이다. 본작에서의 프로덕션은 이전 BBNG의 작품들과 동일하게, 샘플링을 활용하기보다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순수히 연주로만 구성하고 있기에 — 당연하게도 BBNG의 연주가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Sour Soul>에서 보여준 이들의 퍼포먼스는 전작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작의 전반적인 프로덕션은 1960~70년대의 필름 스코어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차분하고 절제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 위에 얹히는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래핑을 마치 빈티지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듯한 감상을 받게 만든다.

BBNG의 역량이 가장 두드러지는 트랙은 "Ray Gun"과 "Six Degrees"이다. "Ray Gun"은 마치 오래 전의 스릴러 영화 속 한 장면을 음악으로 풀어놓은 것처럼 들리는 트랙이다. 질게 깔린 브라스 섹션이 일차적으로 은밀한 긴장감을 생성하며, 이후에 따라오는 리듬 섹션이 마치 조용히 표적을 뒤쫓는 발걸음처럼 본 트랙 만의 분위기를 완성해 내고 — 이 미장센 속으로 고스트페이스 킬라와 MF DOOM의 랩 배틀이 스며들며 마침내 곡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렇다 하면 "Six Degrees"는 보다 직선적인 방식으로 BBNG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트랙이다. 단출하지만 뚝직한 베이스라인 위로 날카로운 기타 리프가 엉켜들고, Danny Brown의 약에 취한 플로우가 얹히면서 한 편의 하드보일드 소설과도 같은 — 음울하고 날이 선, 또 뒤틀린 감각의 세계를 형성한다.



앨범의 MC를 담당하는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활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본작에서 본인 특유의 유려한 플로우와 서사적인 감각을 살려 BBNG가 조성한 어두운 분위기 속을 유령처럼 유영하는데, 분명 이 퍼포먼스가 그의 다른 작품들과 비견될 만한 정도는 아니어도 — BBNG의 연주와 맞물려 더욱 더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Food"에서 그는 'I'm a beast, my brother / 난 짐승과도 같다네, 형제여'라며 랩을 내뱉는다. 그 말 그대로, 그는 BBNG가 구사해낸 사운드 위에서 맹렬히 질주하기도 하고, 액션물의 주인공이 되어 랩 배틀을 펼치기도 하며, 빈티지 누아르 영화 속 한 장면의 일부가 되어 유려하게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기도 한다.

<Sour Soul>을 이따금씩 감상하다 보면, 어느 이름 모를 외딴 지역에 있는 재즈 클럽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무대 위에서는 한 무리의 연주자들이 묵묵히 악기를 조율하고 있고, 그들 사이로 붉은 조명이 일렁이며, 베이스 사운드가 맥박 깊은 곳까지 울리며 — 드럼은 숨죽인 듯 흐르다 이따금씩 거칠게 울려 퍼진다. 그 위로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근사한 목소리가 겹쳐지며 때로는 속삭이듯이,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간을 가른다. BBNG와 고스트페이스 킬라는 <Sour Soul>이라는 흑백영화를 함께 만들어낸 감독이자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Sour Soul>은 BBNG이 본인들의 커리어에 처음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임은 물론, 고스트페이스 킬라는 중년 베테랑 래퍼가 발표할 수 있는 최고치의 작품이다.



Regulate... G Funk Era - Warren G

1994.06.07 / ryuzimoto

1. Regulate (feat. Nate Dogg) / 2. Do You See (feat. Nate Dogg) / 3. Gangsta Sermon (feat. B-Tip & Ricky Harris) / 4. Recognize (feat. The Twinz) / 5. Super Soul Sis (feat. Jah Skills) / 6. '94 Ho Draft (feat. B-Tip & Ricky Harris) / 7. So Many Ways (feat. Wayniac & Ladt Levi) / 8. This D.J. (feat. O.G.L.B.) / 9. This Is the Shack (feat. The Dove Shack) / 10. What's Next (feat. Lil Malik) / 11. And Ya Don't Stop / 12. Runnin' wit No Breaks (feat. Jah Skills, Bo Roc, G Child & The Twinz)

94년 봄 비치의 거리는 지펑크(G-Funk)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그 한복판에선 조금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존의 규칙을 고수하면서도, 한층 유려하고 멜로디컬한 사운드가 말이다. 이는 점차 퍼져나갔고, 중심에 있던 워렌 지(Warren G)는 치열한 서부의 에너지보다 좀 더 여유롭고 팝과 알앤비 장르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단순히 사운드적인 접근을 넘어, 지펑크의 본질을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전환점이었다. 그 결과, *<Regulate... G Funk Era>*는 일반적인 앨범 그 이상의 의미, 즉 다시 말하자면 씬에서 '장르의 진화'를 목도하게 된 또 하나의 순간이라는 점이다.

Dr. Dre의 이복동생이자 동시에 트리오 213의 멤버였던 워렌 지는 *<The Chronic>*과 *<Doggystyle>*에 참여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명함을 내민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앞선 두 앨범을 포함, 타 지펑크 작품들과는 다른 노선에 발을 올렸다. 종착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고립된 루트는 아니었다. 확실히 큰 프레임은 지펑크이지만, 내부의 방법론이 확장된 것은 분명하다. 당시 서부 힙합에서 심심하지 않게 엿볼 수 있던, 어둡고 거친 레퍼토리 또는 폭력적인 요소들을 덜어내고 대신 인간적이고 섬세한 면모를 강조했다. 이는 음악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Regulate... G Funk Era>*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인 의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Michael McDonald의 "I Keep Forgettin'"을 차용한 트랙이자

Nate Dogg의 최절정 보컬이 담긴 "Regulate"는 정점이자, 워렌 지가 바라본 지평크의 이상향이 담겨있다. 강렬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넘실거리는 신디사이저, 그리고 뚜렷한 베이스 라인으로 프로덕션은 매혹적이다. 그 위에 후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무겁지 않게, 마치 하나의 리릭 스토리처럼 풀어나가는 느긋한 퍼포먼스가 얹어져 힙합보다는 '랩송'에 더 가까운 정체성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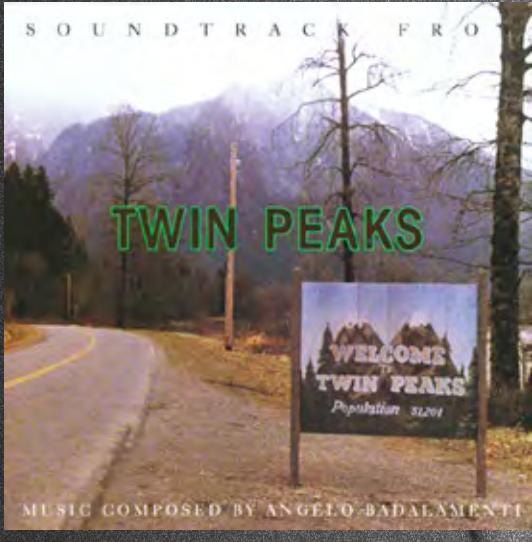
그 뒤를 잇는 곡들 역시 앨범의 톤을 잘 이어가며 그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ate Dogg과 한 번 더 합을 맞춘 "Do You See"는 본질적으로 지평크의 기조를 지키면서 알앤비 맛을 한껏 가미했다. 여기에선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고백하는 듯한 목소리로 가사에 몰입한다. 앨범의 두 번째 싱글이자 또 다른 히트곡인 "This DJ"는 워렌 지 본인이 DJ로서의 자아를 드러내며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담하게 읊조린다. 이처럼 앨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내러티브는 인간 워렌 지의 삶에서 발산되는 사건들과 감정들의 결집이다.

<Regulate... G Funk Era>에서 선보인 선율과 리릭은 지평크를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한 새로운 언어이자 동시에 소통 방식 혹은 매개체이다. 앨범의 모든 순간은 지평크가 힙합이라는 문화 내 수많은 서브장르 중 하나를 넘어 대중친화적인 장르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록 상대적으로 Dr. Dre와 Snoop Dogg의 영향력에 가려진 부분이 있지만, 워렌 지는 그들보다 더 순수하게 장르를 사랑했다는 점에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만들어낸 지평은 힙합의 한 분파를 넘어선 음악적 성취 그 자체이다.





4_the_divine_EDITORS'_PICK.jpg



Soundtrack from Twin Peaks - Angelo Badalamenti

1990.08.31 / 자카

데이비드 린치는 탁월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그의 음악적 역량 역시 무시할 것이 못 된다. <이레이저 헤드>에서부터 두드러졌던 그의 역량은 안젤로 바달라멘티(Angelo Badalamenti)와 조우한 순간부터 눈부시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트윈 픽스>에서 마침내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기에 이른다. 전자 피아노와 신디사이저 현악기, 그리고 고유한 기타 선율로 <트윈 픽스>의 초현실적이고 음산한 분위기가 완벽하게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Twin Peaks Theme"과 "Laura Palmer's Theme"은 영화의 감정선까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줄리 크루즈가 보컬에 힘을 보탠 "Falling"과 "Into the Night" 역시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작품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한다. <Soundtrack from Twin Peaks>는 작품 속 세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며,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비전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월 15일,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난 데이비드 린치는 <트윈 픽스>를 비롯한 수많은 걸작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데이비드 린치와 그의 유산은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살아 숨 쉬다. Rest in peace.



Hail to the Thief - Radiohead

2003.06.09 / 감상주의

사건 없는 역사란 없다. 멀쩡한 국가는 것도 없다. 깨끗한 정치란 그저 유세를 위한 빙말이다. 공정한 이념이란 그저 허상이다. 참사와 전쟁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어난다. 성군이나 올바른 정당 따위를 찾지 마라. 부패와 무능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인가 하면, 현재의 권력자들과 다음 권력을 위한 기회주의자들만 있을 뿐이니까. 다만 그 사이에 일부 휘둘리지 않고 배우려는 학자, 알리려는 언론인, 드러내려는 예술가, 그리고 치열하게 버티며 살아가려는 백성들은 있다. 현대인이라는 터를 아래 불안과 분노 속에 내던져진 이들에게, 그러나 세상이 우두머리(Chief)를 도둑(<Thief>)이라 칭할 권리마저 감히 앗아 가진 못할 거다. 역대 톰 요크 중 가장 날 선 조롱, 역대 라디오 헤드 중 가장 정치적이던 작품은 20년 즈음 후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만약 이 시대 한가운데서 당신이 살면서 앨범 커버 및 부클릿의 프레이즈들을 본 적 없는 게 아니라면, "2+2=5"의 내러티브를 소설의 모티브로만 여기지 않는다면, "Sit Down. Stand Up"이란 제목으로부터 부조리함을 느낄 줄 안다면, "There There"를 찰진 드럼 질감과 때깔 좋은 연주 듣는 맛이 전부인 히트송으로 넘기지 않을 상식이 있다면 말이다. 장담컨대, 다른 대표작들도 아닌 본작을 택해 바로 이 시점에 소개한 나의 결정은 결코 틀리지 않다.



rosie - ROSÉ

2024.12.06 / blvckmvttter

아이돌의 홀로서기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얹매여 있던 기존 케이팝 문법의 탈피일 수도, 하이프(Hype)를 올려 연예계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야망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단지 팬서비스와 수익화 수단에 그칠 수도 있다. RM의 <Right Place, Wrong Person>은 아마도 전자의 목적에, 끊임없는 <aboutZU>는 후자에 근접한 앨범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두 앨범을 같은 선상의 양극단에 놓았을 때, 로제의 솔로 데뷔 앨범 <rosie>는 <Right Place, Wrong Person>의 위치와 꽤나 가깝게 놓여 있다. 힙합에 대한 열정에 기반한 RM의 아티스트 큐레이팅은 runo MArs, Greg Kurstin, Ojivolta 등 팝씬에 탄탄히 자리잡은 아티스트들을 기용하는 안목과 겹쳐 보이고, Tailor Swift 식의 메인트스트림 팝에 대한 로제의 열망은 얼터너티브 장르에 대한 RM의 그것과 유사한 듯하다. 두 작품은 방향성과 장점을 넘어 그 단점도 공유한다. 아티스트로서의 자아와 청사진을 스케치하고 프로토타이핑하는 데에 있어 작가 본연의 색채가 다소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블렌더 튜토리얼에 충실하여 모델링과 렌더링을 완벽하게 완성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누구의 작품이라 해야 할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로제의 답을,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려야 할 차례에 왔다.



Flamagra - Flying Lotus

2019.05.24 / moogsick

제목과 커버 아트에서부터 감지되는 형형한 화염의 모티프, 플라잉 로터스(Flying Lotus)의 <Flamagra>는 그 이미지처럼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파괴적으로 태오른다. 전반적으로 전작 <You're Dead>를 더욱 블랙 뮤직 친화적이고 횡기한 형태로 다듬었으며, Denzel Curry, Anderson .Paak, Solange 등 이름난 힙합/알앤비 아티스트들이 대거 가세해 플라잉 로터스라는 아티스트에 입문하기에도 손색없는 작품이다. 앨범 전반에 쫀득한 베이스를 더한 Thundercat의 이름도 빼놓을 수 없겠다. 이처럼 <Los Angeles> 혹은 <Cosmogramma>로 대표되는 웅기 위주의 전기 커리어에 비하면 한결 친절하지만, 그 속에는 플라잉 로터스가 어린 시절 겪었던 로스앤젤레스 지진 및 화재의 트라우마와 친한 동료 Mac Miller를 떠나보낸 기억("Thank U Malcolm")이 깃들어 있다. 최근 세상을 떠난 David Lynch 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마치 재앙이 '반드시 와야만' 한다고 선언하듯 'Fire is coming'을 연달아 외치는 동명의 트랙까지,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반복되는 재난 및 뛰어난 아티스트의 타계가 묘한 섬짓함을 자아낸다. 이럴 땐 '역사는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이 괜스레 미워질 수밖에.



Perverts - Ethel Cain

2025.01.08 / 자카

<Preacher's Daughter>의 성공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에델 케인(Ethel Cain)의 새로운 앨범 <Perverts>는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고딕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과감히 배제한 뒤, 침잠하는 피아노 선율과 로우파이, 80년대 초반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과 드론 사운드로 가득 채워진,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표방하는 음반이다. 종교, 성적 수치심, 트라우마를 비롯한 무거운 주제를 탐구하며, <Perverts>는 청자에게 깊은 불편함과 동시에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Punish"는 점차 소멸하듯 곡을 집어삼키는 왜곡된 기타 사운드를 통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Housofpsychoticwomn"은 13분간 반복되는 "I love you"라는 가사로 불편함을 극대화한다. 물론 곡의 템포가 필요 이상으로 느리다 느껴지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 적지 않은 피로감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다. 다크 앰비언트와 드론이라는 소화하기 힘든 장르를 어느정도 훌륭하게 선보였다는 점은 그 점 자체만으로 꽤나 인상적이지만, <Perverts>는 그 정도가 과하다. 결론적으로 <Perverts>는 청자를 불편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훌륭히 이루어내었지만, 그들의 이토록 어둡고 방대한 비전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평작이다.



EUSEXUA - FKA Twigs

2025.01.24 / 자카

낙원을 뜻하는 단어 *euphoria*와 성을 상징하는 단어 *sexuality*를 결합한 단어 Eusexua. FKA 트위그스(FKA twigs)의 세번째 정규 앨범 <EUSEXUA>는 그 제목처럼 육체와 정신, 감각과 연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초월을 탐구한다. 테크노와 앰비언트, 그리고 일렉트로닉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프로덕션이 그녀의 가벼운 보컬과 맞물려 독특한 질감 아래 그녀의 황홀한 자기 상실 추구가 친밀한 진실로 가득 찬 여정을 따라 이어진다. 타이틀곡 "EUSEXUA"는 미니멀한 포온더풀로어 리듬 위에 쌓아 올린 황홀한 사운드로 앨범의 테마를 정의하고, "Drums of Death"는 다층적인 폴리리듬과 공격적인 사운드 디자인으로 춤과 제의적 에너지를 결합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노스 웨스트(!)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Childlike Things"의 소리로 구현되는 고통과 자기 해방 역시 인상적이며, 섬세한 신스 패드와 독창적인 보컬 프로세싱이 두드러지는 "Striptease" 역시 앨범의 하이라이트라고 칭할 만하다. FKA 트위그스는 확고한 창의성과 영적 감각을 바탕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작품으로 구현해내었다. 고통과 상실, 그리고 기쁨 사이의 어딘가를 오가는 본작 <EUSEXUA>는 2025년 음악계의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놓았으며, 올해 발표될 모든 팝 앨범들은 필연적으로 본작과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_NEW_slide_park.jpg

└ 감상주의
└ 스룩산
└ 자카
└ moogsick
└ SONGCHICO

2_watching_FULL_with_the_sounds_off.jpg

└ 감상주의
└ 자카
└ Indie Aisle

3_go:od_CLASSICS.jpg

└ 자카
└ ryuzimoto
└ Indie Aisle

4_the_divine_EDITORS'_PICK.jpg

└ 감상주의
└ 자카
└ blvckmvttter
└ moogsick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khkhomoofficial@gmail.com
@houseofmatters

